

전후 남성성 회복과 여성 욕망의 금기*

— 최정희의 『끝없는 浪漫』을 중심으로

오 태 영*

[초 록]

한국전쟁의 발발 이후 남한사회의 구조 변동을 추동한 ‘전후 레짐’의 문법 속에서 남성과 여성은 모두 젠더 정치의 새로운 장에 놓였다. 그리고 그때 젠더 정치는 대체로 상실된 남성성 회복과 여성 욕망의 금기로 점철되었다. 최정희의 『끝없는 낭만』에는 미군의 남성성에 기대어 몰락한 가부장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확보하고자 한 남성과, 미군과 사랑을 나누고 결혼한 여성을 ‘양공주’로 규정하여 비난하는 한편, 불행한 그녀를 구원하는 주체로 자신을 놓는 행위를 통해 상실된 남성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남성이 등장한다. 해방과 전쟁을 거쳐 오면서 자신들의 남성성이 상실되어가는 것에 불안을 느끼고 있었던 그들은 여성을 성적 교환가치의 대상으로 위치시키거나 여성의 사랑과 욕망을

* 이 논문은 동국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 ‘동국GRANT사업(신진연구)’의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S-2017-G0001-00023).

**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조교수

주제어: 전후, 체제, 젠더 정치, 남성성, 여성성, 상실, 회복, 욕망, 금기
the Postwar, Regime, Gender Politics, Masculinity, Femininity, Lose, Recovery, Desire, Taboo

불온한 것으로 낙인찍는 것을 통해 자신들의 남성성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거기에는 순혈주의와 민족주의로부터 자양분을 제공받았던 가부장제도와 남성우월주의의 시선이 응크리고 있었다. 한편, 최정희의 『끝없는 낭만』은 미군과의 사랑과 결혼에 이른 여성의 파멸을 서사화하고 있다. 그녀가 파멸에 이른 것은 전쟁이라는 예외상태 속 남성성 상실이 욕망하는 여성을 타락한 자나 배반한 자로 규정하여 그러한 욕망의 발현 자체를 불가능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이때 여성의 낭만적 사랑은 그 감정의 주체인 여성에 의해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남성성 회복을 욕망하는 남한사회의 남성 젠더들을 대상으로 해야만 비로소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타락하고 오염된 여성은 스스로 단죄와 정화의 제의를 수행해도 민족과 국가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남성성 회복의 젠더 정치가 여성의 주체적인 자기 기획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말한다. 상실된 남성성 회복의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성의 욕망을 금기시한다는 것, 전후 레짐 하 젠더 정치의 문법은 바로 여기에서 작동하고 있었다.

1. 전후 사회구조의 재편과 젠더 질서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남성 젠더의 주체성 확립 및 남성성 분출의 핵심적인 ‘장치’¹⁾였다. 남성 젠더는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새롭게 정립해나가는 한편, 전쟁이 마련한 젠더 정치의 문법에 의해 남성성을 발현할 수 있었다. 특히 이때 남성 젠더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하는 자의 위치에 자신을 놓음으로써 ‘민

1) 조르조 아감벤은 장치를 특정한 권력의 작동 과정에서 “생명체들의 몸짓, 행동, 의견, 담론을 포획, 지도, 규정, 차단, 구조, 제어, 보장하는 능력을 지닌 모든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권력 관계의 규율화·내면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적이라고 여겨졌던 영역까지 확장한 개념이다. 조르조 아감벤(2010), 양창렬 역, 『장치란 무엇인가?/장치학을 위한 서론』, 서울: 난장, p. 33.

족=남성'이라는 등식을 강화할 수 있었다. 과거 식민지 말 전시총동원 체제가 식민지 조선인을 제국 일본의 충직한 '신민(臣民)'인 '군인'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게 했던 것처럼, 한국전쟁은 전쟁을 수행하는/할 수 있는 자로 오직 남성 젠더를 위치시키면서 남성성의 세계를 강화하는 한편, 남성성의 폭력적 표출을 당연시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전쟁이 촉발한 남성성의 강화는 전장에서서의 처참한 살육, 만연한 죽음에의 공포, 신체의 훼손 등을 낳으면서 역설적으로 남성성의 상실로 귀결되기도 하였다. 즉, 전쟁은 실제적·상징적으로 남성(성)의 부재 상태를 낳았던 것이다. 전쟁의 발발은 해방 이후 민주주의 국가 건설의 주체로서 참여하고자 한 여성 젠더의 위상 재정립 과정²⁾에 불안을 느낀 남성 젠더들로 하여금 전쟁 수행의 핵심적인 자리를 독과점하는 것을 통해 남성성을 강화·고착화한 측면이 있지만, 바로 그 전쟁으로 인해 남성 젠더는 생존의 위협과 죽음에의 공포에 직면해 남성성을 발현하기는커녕 그것을 상실해갔다. 물론 상실의 감각 은폐되었고, 상실을 은폐하기 위해 오히려 남성성의 폭력적인 표출이 강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남성성이 강하게 표출되면 될수록 바로 그 남성성의 상실을 방증하고 있었던 셈이다.

한편, 전쟁 발발에 의해 남한 내 미군의 주둔과 점령이 지속되어가면

2) 1946년 5월 부녀자 인신매매 금지, 1946년 9월 부녀국 설치, 1947년 9월 보통선거법 규정에 의한 여성 참정권 획득, 1947년 공창제 폐지 등 해방 이후 일련의 법률적 시행은 여성의 자유와 권리 쟁취 — 실제로 그것이 달성되었는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 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고, 젠더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동시에 1946년부터 약 1년에 걸쳐 5개의 여성신문과 7개의 여성잡지가 발행되어 여성 관련 담론이 폭증하였는데, 주로 '민주주의=남녀평등'이라는 도식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 과정에서 여성의 자유와 권리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여성의 위상 변화(에의 움직임)는 남성중심주의적 질서를 와해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그에 따라 민족국가 발전을 위한 여성의 참여와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현모양처'로서의 숭고한 지위로 제한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임미진(2017), 「1945-1953년 한국 소설의 젠더적 현실 인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1-10.

서 남한사회의 남성(성)은 또 다른 측면에서 위축되었다. 과거 제국-식민지 체제기 제국 일본의 통치 권력에 의해 남성성이 거세되거나 상실되었던 식민지 조선의 남성 젠더들은 해방 직후부터 자신들의 상실된 남성성을 회복하기 위한 일련의 탈식민화의 움직임들을 보여 왔지만, 미군정 체제하 후(後)식민의 상황 속에서 그러한 탈식민화의 기획은 결코 쉽게 달성될 수 없었다. 이어 한국전쟁을 계기로 남성 젠더들은 자신들의 젠더적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하였지만, 미군의 주둔과 점령은 후식민의 상황을 고착화하는 한편, 또다시 그들의 남성성을 위축시키거나 상실케 하였다. 제국 일본의 통치자의 자리를 점령군 미군이 대체한 상황 속에서 남한사회의 남성 젠더들은 자신들의 남성성을 발현하는 데 장애를 겪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미군의 주둔과 점령이 남한사회 남성 젠더들의 남성성 상실로만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해방 이후 남성성 회복의 욕망이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타자화하는 한편, 점령군이었던 미군에게 남한사회의 여성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 남성들 사이의 연대가 발생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점령군과 원주민 남성들을 관통하는 남성성이 새롭게 형성되기도 하였다.³⁾ 즉, 남한사회의 남성들과 미군들 사이에 여성을 교환가치의 대상으로 매개하는 행위를 통해 남성 ‘동성사회적 욕망(homosocial desire)’이 발생하였고, 이에 기초해 남성 연대가 마련되었으며, 거기에는 여성에 대한 혐오의 감정이 분출되기도 하였다.⁴⁾ 흥미롭게도 남한사회의 남성

3) 이와 관련해 미군정 체제기 이후 한국 내 미군을 중심으로 한 매매춘이 한국과 미국의 두 정부에 의해 ‘후원되고 규제되는 체계’로서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진전시키고 ‘남한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 열심히 싸우는’ 미군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 또한 점령군 미군과 남한사회 원주민 남성들을 관통하는 남성성 연대의 단면을 보여준다. 캐서린 H.S. 문(2002), 이정주 역, 『동맹 속의 섹스』, 서울: 삼인, p. 20.

4) 허윤(2016), 「냉전 아시아적 질서와 1950년대 한국의 여성혐오」, 『역사문제연구』 35, 역사문제연구소, pp. 89-90.

젠더들은 자신들의 남성성을 거세했던/거세하고 있다고 여겼던 미군이 라는 또 다른 남성의 욕망에 기생해 남성성을 재구축하거나 발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점령군 미군들은 남한사회 남성 젠더들의 남성성을 위축시키거나 제한할 때에만 적대시되었고, 여성을 타자화하여 남성 주체의 자기 정립의 기획을 펼쳐갈 때에는 암묵적 공모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미군에 대한 적대와 공모의 양가적 태도는 남한사회의 남성 젠더들을 둘러싼 역사적 조건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전쟁이라는 열전과 전후의 냉전적 질서 및 남북한 분단 체제가 구축되어가는 가운데 미국을 축으로 하는 일본, 남한, 동남아시아 지역들은 자유반공 연대 모색의 움직임 보였다. 하지만 전쟁이 고착화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남한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미군 주도의 정전 협상이 진행되었고, 이에 이승만 정권은 정전 반대 북진통일 등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정전 반대 북진통일의 추진 과정에서 점령군인 미군에 대한 적개심이 고조되기도 하였다. 고착화되어가던 한국전쟁의 정전을 추진하던 미군에 대한 적개심과 북진통일을 통한 민족적(=남성적) 주체의 정립 기획의 기저에는 모두 반공 이데올로기가 놓여 있었지만, 그것은 젠더 정치의 맥락에서 미군에 의한 남성성 위축·제한·상실과 미군과 공모한 남성성 신장·표출·회복으로 나뉘져 발현되었던 것이다.

전쟁의 발발과 휴전에 이은 ‘전후(戰後)’ 남한사회의 구조 변동과 그것을 추동한 ‘전후 레짐(postwar regime)’⁵⁾의 발현 속에서 남성성은 지속

5) 이 글에서 사용하는 ‘전후 레짐’은 해방에서 단정 수립, 그리고 한국전쟁 발발과 전후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적인 냉전 질서와 남북한 분단 체제가 구축되어가는 가운데 반공국가로서 자신의 위상을 재정립해간 남한사회의 실정성을 재생산하기 위한 일련의 통치적 배열로서, 개인들의 행위를 규제하고 그 효과를 통제하는 규범을 나타내기 위해 임의적으로 사용한 개념이다. 이는 인간 삶의 조건이자 개인의 행위와 욕망을 구획 짓는 한편, 사회 구조 변동의 추동 원리로서의 레짐을 염두에 둔

적으로 상실과 회복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전쟁으로 인해 상실된 남성성을 전후 남한사회의 구조를 재편한 체제의 질서와 문법이 회복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남성 젠더들은 자기 주체성 확립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고, 그러한 과정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 분단 체제하 반공국가로서 남한사회에서 자신들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전쟁으로 인해 상실되거나 훼손된 남성성에 대한 불안이나 전쟁이라는 광기 속에서의 폭력적인 남성성의 표출에 대한 회의와 의심은 전후 파괴된 국가 재건의 주체로서 자기를 위치시키는 과정 속에서 봉합되거나 망각되었다. 그리고 이때 여성들은 대체로 남성성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상, 특히 성적 대상으로 타자화되었다. 위축되거나 훼손되거나 상실된 남성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또다시 타자로서 여성이 필요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남성성을 훼손하거나 남성성에 위협을 가하는 여성 젠더의 존재는 그 자체로 부인당하기 일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 글에서는 최정희의 『끝없는 낭만』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 소설은 1956년 1월부터 1957년 3월 『희망』지에 「광활한 천지」라는 제목으로 연재되었다가 1958년 동학사에서 『끝없는 낭만』으로 개제되어 단행본으로 발간되었는데, 연재본과 단행본 사이의 내용상 차이는 거의 없다. 『희망』지는 전후 한국사회의 급격한 아메리카니즘을 지식인, 엘리트 등의 고급문화와 여성 섹슈얼리티의 과잉과 연루된 질 낮은 아메리카니즘의 하위문화로 분절하는 매체 지향과 전략을 보였다. 이는 전후 레짐과 연동된 1950년대 대중지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였다.⁶⁾ 하지만 이 글에서는 『희망』지의 미디어적 특징은 논

것이다. 또한, 주어진 문제 영역에 대한 행위자들의 기대가 수렴되는 원칙, 규범, 규칙, 그리고 의사결정의 절차 정도로 정의되는 국제정치학에서의 레짐의 일반적 용법(Krasner, Stephen D. (1983),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pp. 1-2.)을 차용한 것이다.

6) 공임순(2017), 「1950년대 전후 레짐(postwar regime)과 잡지 ‘희망’의 위상」, 『대중서사연구』 23-3, 대중서사학회, pp. 9-55. 공임순은 이 논문에서 ‘준전시-전시(전쟁)-전

외로 하고 전후 젠더 정치의 관점에서 『끝없는 낭만』의 서사가 갖는 의미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소설은 전후 비(非)팜므파탈로서의 양공주를 통해 낭만적 사랑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 소설들과 큰 차이를 갖는다. 기존의 양공주에 대한 문학적·문화적 표상은 주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나선 생계형, 불순한 존재로서의 비난과 낙인의 상징,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요부 또는 남성을 유혹하는 팜므파탈, 그리고 군사주의와 제국주의의 희생자 등이었다. 하지만 최정희의 이 소설은 ‘새로운 유형’의 ‘양공주’를 통해 여성의 욕망을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⁷⁾

이 소설은 당시 여타 문학작품과 달리 여성 작가에 의한 여성의 이야기로서,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상실된 것들의 회복, 파괴된 것들의 재건이라는 전후 남한사회의 패러다임 속에서 전쟁기 욕망하는 여성의 몰락 과정을 서사화하고 있다. 그리고 전형적인 양공주들과 ‘다른 여성’의 사랑과 죽음을 서사화하는 것을 통해 문학적으로 표상된 전후 남성성 회복과 여성 욕망의 부인이라는 젠더 정치의 맥락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후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전후 레짐 하 남성성 회복의 욕망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서 여성의 욕망을 금기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욕망하는 주체로서 여성의 자기 구축의 가능성을 펼쳐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후’로 이어지는 분절과 연쇄를 가리키기 위해 ‘전후 레짐’이라는 용어를 상정하였다.

7) 김복순(2012), 『“나는 여자다” — 방법으로서의 젠더』, 서울: 소명출판, pp. 172-173.

2. 남성성 회복의 욕망과 여성 통제

최정희의 『끝없는 낭만』은 여성의 이야기이다. 하지만 그러한 여성의 행위와 욕망을 누가 바라보고 의미화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여성이 놓인 세계의 질서는 누구에 의해 어떻게 추동되고 있는가에 주목했을 때, 이 소설에 표상된 남성 젠더들(의 행위와 욕망)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전후 남한사회에서 몰락한 가부장으로서의 아버지의 모습이다. 과거 식민지시기 출향하여 만주 일대를 전전하던 그는 결혼 후 하얼빈에 정착하여 농장에서 일하다 해방 직후 귀향한다. 하지만 해방의 감격도 잠시 북조선 공산화에 생존의 위협을 느낀 그는 가족과 함께 월남하여 서울에서 피난생활을 이어간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도 죽음에의 공포 속에서 숨어 지내던 그는 가족의 생존을 위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은 채 무기력한 삶을 이어갈 뿐이었는데, 가부장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한 지 오래였다.

이 아버지의 표상은 여러모로 남성성을 상실해간 남성 젠더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낸다. 해방 이후 그는 민족국가 건설의 주체로서 자신을 재정립하지 못하고, 술과 아편에 중독된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을 뿐이었다. 과거 식민지 말 친구인 배형식이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전력으로 인해 해방 이후 북조선에서 투옥되자 그의 아들 배근에 대한 모종의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던 그는 그 자체로 식민의 체험과 기억을 각인당한 신체로서 탈식민화의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식민화된 상태 속에서 남성성을 상실한 자로서 그는 해방 이후 민족국가 건설이나 반공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민족을 위한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다. 식민의 체험과 기억을 탈각할 수 없는 그는 그저 술과 아편에 취해 아내와 딸에 의탁할 수밖에 없었는데, 집안에서도 그녀들에게 멸시의 대상이 되어 천대받는다. 미군의 군복 등을 세탁해 근근이 생계를 유지해가고 있던 아내와, 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미군의 원조에 의존할 뿐 가족의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그는 몰락한 가부장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그는 무능한 자신의 삶을 타개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딸을 폭력적으로 대할 뿐이었다. 가부장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의 지위를 누리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후 그는 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미군이 방문하자 하얼빈에서 외국인이 경영하던 목장의 노동자로 일하면서 습득한 영어를 통해 의사소통하여 친교를 맺는다. 그리고 그 미군의 도움으로 아편 중독을 치료받는 한편, 미군 부대에서 통역자로 일하게 된다. 일견 영어 구사라는 개인적 능력을 통해 경제활동을 비롯한 사회생활을 영위해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모두 딸을 미군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미군에게 자신의 딸을 성적 대상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해 가부장의 권위, 나아가 자신의 상실된 남성성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남성성 회복에의 욕망은 결코 달성 불가능한 것이다. 무엇보다 딸(여성)에 기대어 자신의 남성성을 회복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언제나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자신을 미군에게 제공하려는 가부장의 폭력에 대해 딸은 양공주가 되는 불안을 느끼고, 그것이 모두 아버지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너 미쳤니? 배은망덕해두 분수가 있지. 우리 집안에 은인을 그래 인연을 끊어버릴 작정이냐? 「쥬오지」씨한테 편지만 했다 봐라. 당장 목아질 비틀어 놓는다…….』

고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윈 동네가 다 듣게소리…….

『왜 이리 소릴 크게 치세요? 동네가 부끄럽게. 아버지 제발 좀 그만 계세요. 오늘날 이렇게 된건 모두 아버지 때문이예요. 왜 날 이렇게 만들어요? 날 왜 천길 낭떨어지기에 떨어지게 하려는 거예요?』⁸⁾

8) 崔貞熙(1958), 『끝없는 浪漫』, 서울: 同學社, p. 118.

미군과의 교제가 지속되는 것에 불안을 느낀 딸은 번민하다 그와의 단교를 결심하고 편지를 보내 이를 통보하려고 한다. 이에 아버지는 딸의 불안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폭언을 일삼는다. 스스로 양공주가 되는 것은 아닌지 마치 낭떠러지 앞에 선 공포를 느끼고 있는 딸의 심정을 헤아리려고 하기는커녕 가부장으로서의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상실된 남성성 회복 과정의 일그러진 욕망을 짐작할 수 있다. 아버지는 딸과 미군의 단교로 인해 경제적 원조를 받지 못할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었다기보다는 미군에 기생해 자신의 남성성을 회복하고자 한 욕망이 좌절될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딸이 양공주가 되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에게 지속적으로 딸을 제공해 자신의 상실된 남성성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후 미군과 딸의 교제가 이어지고 두 사람을 결혼시키고자 했던 그는 결혼 직후 출산한 딸과 아이를 뒤로 하고 먼저 미국으로 돌아간 미군에 대해 의심과 불안을 가지고 있었던 딸을 위로하기보다는 딸을 통해 미군으로부터의 경제적 원조를 계속해서 받아 내기를 원하였고, 미군이 딸을 데려갈 때 장사 밀전을 받아낼 생각뿐이었다. 결국 그는 딸을 교환가치의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처럼 『끝없는 낭만』에서 몰락한 가부장으로서의 아버지는 식민의 체험과 기억을 각인당한 신체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해방 이후 민족국가 건설의 주체로서 자기를 재정립할 수 없는 자이다. 또한 민족을 위한 헌신으로 의미화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자로서 그는 미군 중심의 경제 체제에 기생해 자신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닌 미군에게 여성(딸)을 제공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미군이라는 대타자와의 수평적 거래는 기실 불가능한 것이었고, 그런 점에서 그는 언제나 제한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발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가부장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한 남성 젠더라

고 하더라도 그가 여성을 도구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가부장으로서 아내와 딸에 대한 자신의 권위가 그 자체로 정당성을 지니고 있지 못한 것과 무관하게 그는 여성(아내와 딸)을 자신의 상실된 남성성 회복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다시금 주목해야 할 것은 권위를 상실한 남한사회의 가부장이 미군에게 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부장으로서의 상실된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딸을 제공한다고 했을 때, 그 거래의 대상이 미군이라는 점은 새삼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때 미군은 남성성을 상실한 남한사회의 남성 젠더들과는 달리 그 자체로 남성성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발현하는 데 정당성을 갖는 존재로서 인식된다. 즉, 미군의 남성성은 의문시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지속적인 식민의 상태에 놓인 남한사회의 남성 젠더들에게 바로 그 미군(의 남성성)이 욕망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해서 남한 주둔과 점령을 통해 자신들의 남성성을 약화시키거나 거세시킨 존재가 미군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들의 강력한 남성성을 동경하고 있었을 뿐인 것이다. 마치 식민지시기 제국 일본의 남성화된 통치 권력에 의해 식민지 조선인 남성 젠더들의 남성성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저항하는 것이 아닌 모방하는 것을 통해 제한적이거나 남성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양상이 여기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몰락한 가부장의 남성성 상실은 해방과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촉발한 사회 구조의 변동에 있다기보다는 그의 자가당착적인 욕망의 탐닉에 그 원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끝없는 낭만』의 서사에는 이처럼 미군의 남성성을 동경하고 그에 기생해 자신의 남성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일그러진 욕망을 지니고 있는 몰락한 가부장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와 달리 식민의 체험과 기억을 각인당한 훼손된 신체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남성 역시 등장한다.

그가 바로 이차래의 약혼자인 배곤이다. 그는 아버지가 투옥되고 어머니가 죽은 뒤 이차래 일가와 월남하였다가 한국전쟁 발발 이후 자원하여 군에 입대한다. 북한에 투옥된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참전한 그였는데, 이 소설에서 비록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전쟁을 수행하는 그의 용맹함이 영웅적으로 형상화되어 강조되고 있다. 즉 이 소설에서 배곤으로 상징되는 남성 젠더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이자 가족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반공주의 이념에 기초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자로 의미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끝없는 낭만』 서사 곳곳에서 여성이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는 장치로서 작동한다. 약혼자였던 그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이차래가 미군과 사랑을 나누고 결혼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었는데, 그 불안과 공포는 다름 아닌 배곤이라는 존재 그 자체 때문이었다. 전쟁에 나가 전사한 것으로 알려진 — 물론 이후 살아서 돌아오지만 — 그는 존재하지 않으면서 존재하고 있는 자로서 여성의 욕망을 통제하고 그 욕망의 발현을 금기시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배곤의 여성에 대한 시선과 여성 욕망에 대한 통제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무엇보다 그것은 배곤이 국가와 민족, 가족을 위해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죽음을 무릅쓰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니, 여성의 욕망을 통제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인식 이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다. 이는 전장에서 생환한 그가 미군과 결혼하여 ‘혼혈아’를 낳은 이차래에게 혐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한편, 타락한 여성인 그녀를 자신이 구원하겠다고 말하는 장면을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버지 말씀을 믿어요?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셨어요. 돈 까닭에…… 살수가 없어서 미군하구 결혼했다는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요? 절대로 돈 때문이 아닙니다. 돈때문에…… 살수가 없어

서 미군하구 결혼했다면 양갈보지 뭐예요? 나는 양갈보가 아닙니다. 「캐리·조오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겁니다.』

나는 쓴살같이 내 쏘았습니다.

『그렇던가요? 그렇담 나 개인으로선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운명을 짊어진 사람으로선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 좀더 참아줄줄 알았습니다.

차래씨는 양갈보가 아니라고 자신을 변명합니다만 양갈보들에게 이야길 시켜보더라도 역시 차래씨와 똑같은 말을 할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산다고— 딸라가 탐나서, 호화로운 생활이 좋아서…… 말하자면 허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따위 짓을 한달 여자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라거나 혹은 부모 동기를 위해 맥여 살리기 위해서라고 말할겁니다.

…(중략)…

『곤씨는 저를 웃음게 아시는군요? 타락한 여자로 아시는군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민족을 좀먹는 것 이상의 타락이 또 어디 있겠어요?』

『신성한 국제결혼을 당신은 향락으로 아시는군요?』

『글쎄. 어느 정도 신성한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 현실에선 당신 같은 여자를 타락했다고 볼수 밖에 없어요.』⁹⁾

여기에서 배곤은 ‘한국의 운명을 짊어진 사람’으로 자처하고 있는데, 이는 반공주의 이념에 따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전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그가 미군과 결혼한 이차래를 허영을 충족시키기 위해 타락한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국가와 민족을 ‘좀먹는’ 행위로 여겼기 때문에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는 미군과의 결혼이 사랑에 의한 것이라는 이차래의 목소리는 변명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아니, 애초에 그에게 여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자신을 배반한 여성의 욕망은 그 자체로 부

9) 崔貞熙(1958), pp. 288-289.

인당하고 있는 것인데, 무엇보다 그것은 여성의 욕망이 자신이 아닌 미군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때 미군이라는 존재는 남한사회의 남성 젠더들에게 자신들의 남성성을 위축시키거나 거세할 수 있는 존재로서 인식되어 적대시되고 있다. 배곤의 전우인 현영훈이 미군을 향해 “너희들 미국인의 발밑에 고귀한 정신문명이 짓밟히기만 하는거야. 너희들 발자국이 나있는데 어디라 없이 그렇게 되어 있어.”¹⁰⁾라고 적의를 드러냈던 것 또한 이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현영훈의 적의에 이차래가 즐렬하다고 지적하자 그는 다시 “즐렬?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요. 웨들 이래? 정신을 차려. 물체면하고 무지한 양갈보 축에 한목 끼고 싶어서 그래?”¹¹⁾라고 말하는데, 미군의 입장을 두둔하는 남한사회의 여성 젠더들을 ‘양공주’로 규정하고 혐오의 감정을 여실히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신들의 남성성을 위축시키거나 제한시키는 존재로서 미군을 적대시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자 남성성 상실의 불안감을 표명한 것이다.

이처럼 미군에 대한 적대 감정과 미군을 욕망하는 여성을 혐오할 수 있었던 것은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민족과 국가를 위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자신과 달리 사적 욕망을 탐닉하고 있는 여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물론 이때 여성에 대한 혐오는 미군의 점령에 의한 남성성 상실이라는 견더내기 어려운 문제를 회피하는 전략¹²⁾이었지만, 거기에는 여성을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고 있는 남성의 욕망이 내재되어 있다. 전쟁에 나가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고 있는 자신을 기다리지 못하고, 미군과 사랑을 나누고 결혼에 이른 여성에 대한 비난은 자신의 소유였던 여성을 미군에 빼앗겼다는 상실감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전쟁 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남한에 주둔 점령한 미군은 지속적인 후

10) 崔貞熙(1958), p. 192.

11) 崔貞熙(1958), p. 193.

12) 대상에 대한 혐오는 “실제로 견더내기 어려운 삶의 문제를 보다 잘 회피할 수 있게”(마사 뉴스바움(2015), 조계원 역, 『혐오와 수치심』, 서울: 민음사, p. 180) 한다.

식민의 상태를 고착화시켜 남한사회의 남성 젠더들의 남성성을 위축시키는 존재인데, 그런 점에서 남한사회의 여성 젠더들이 그들과 사랑을 나누고 결혼하는 것은 자신들의 남성성을 보다 약화시키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일정 부분 남한사회의 여성 젠더를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미군에 대한 반감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러한 반감 또한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인 여성을 미군에게 빼앗겼다는 상실감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었다. 여성을 점유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남성성을 구축해가던 남성 젠더에게 여성의 상실은 남성성의 상실이라는 또 다른 불안감을 자아냈던 것이다.

그런데 자신을 버리고 미군을 욕망하고 있는 여성을 ‘양공주’로 낙인찍고 혐오하고 있던 남성은 흥미롭게도 다시 그 여성을 소유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차래의 사랑에 기초한 미군과의 결혼과 출산이 모두 전쟁 때문이라고 말한다. 여성이 허영에 물든 것, 돈을 위해 몸을 판 것 역시 전쟁이 낳은 불행일 뿐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그는 순혈주의에 기초한 배타적 민족주의를 내세워 여성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종용한다. “당신 조상(祖上)의 어느 한분과도 같지 않고 당신과도 같지 않고 조국 땅 안에 사는 우리 민족의 어느 한 사람과도 같지 않은 — 백색 피부와 옴팍 들어간 눈과 우뚝히 높은 코를 가진 아이”¹³⁾로 미군과의 사이에 낳은 ‘혼혈아’를 배제하고, 그 아이를 미군에게 보낼 것을 강권한다. 그리고 전쟁이 낳은 ‘불행한 여성’인 이차래를 자신이 돌보겠다고 말한다. 이 남성의 목소리는 결국 남성에 의해서만 존재의 의의를 가질 수 있는 여성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여성 없이 남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일 뿐이다. 여성을 하위의 열등한 존재로 타자화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려는 남성의 일그러진 욕망이 여기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13) 崔貞熙(1958), p. 299.

이처럼 최정희의 『끝없는 낭만』에는 대타자로서의 미군의 남성성에 기대어 몰락한 가부장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확보하고자 한 남성과, 미군과 사랑을 나누고 결혼한 여성을 ‘양공주’로 규정하여 비난하는 한편, 불행한 그녀를 구원하는 주체로 자신을 놓는 행위를 통해 상실된 남성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남성이 등장한다. 그들에게 여성의 욕망은 부인되고, 여성의 목소리는 봉쇄되어 있다. 해방과 전쟁을 거쳐 오면서 자신들의 남성성이 상실되어가는 것에 불안을 느끼고 있었던 그들은 여성을 성적 교환가치의 대상으로 위치시키거나 여성의 사랑과 욕망을 불온한 것으로 낙인찍는 것을 통해 자신들의 남성성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거기에는 순혈주의와 민족주의로부터 자양분을 제공받고 있던 가부장제도와 남성우월주의의 시선이 웅크리고 있었다. 남성성 상실의 원인이 해방과 군정 체제, 단정 수립과 전쟁 발발 과정에서 지속된 남성 세계의 폭력적 구축 및 붕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령된 상태에 놓인 남성 젠더들의 굴욕감을 교묘하게 은폐¹⁴⁾하는 한편, 그들은 또 다시 여성을 소유하고 제공하고 통제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남성성을 구축해나가고자 하는 욕망 — 그러한 욕망이 역설적으로 남성성 상실로 귀결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 만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14) 김복순(2015), 「트랜스로컬리티로서의 ‘나쁜 여자’와 ‘불평등 정당화’의 남한적 특수성 — 195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1-3, 대중서사학회, p. 41. 이 논문에서 김복순은 1950년대 소설에서 ‘나쁜 여자’로 지목된 대표적인 대상이 자유부인, 여간첩, 양공주, 팜프파탈 등이었는데, ‘나쁜 여자’는 자유·노동에 대한 젠더 불평등, 점령군에 대한 민족적 불평등, 세계냉전 체제의 체제 이념적 불평등, 구원에 대한 젠더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활용되었다고 논의하였다.

3. 욕망하는 여성의 불안과 죄의식

최정희의 『끝없는 낭만』의 서사를 젠더 정치의 관점에서 독해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전후 레짐 하 상실된 남성성 회복의 욕망으로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소설은 여성의 목소리로 여성에 관해 말하고 있는 여성의 이야기이다. 1952년과 1953년에 걸쳐 한국전쟁의 장기전화에 따른 미군 주도의 정전과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이 함께 논의되고 있었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남한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과의 사랑을 꿈꾸고 있던 여성의 자기 서사로서 『끝없는 낭만』의 이야기는 한국전쟁이라는 장치가 낳은 사회 구조의 변동 과정 속에서 여성의 행위와 욕망에 대해 여성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특히 한국전쟁으로 촉발된 남성성 상실을 전후 사회 구조의 재편 과정 속에서 회복하려고 하는 남성 젠더들의 욕망이 분출되는 상황 속에서 여성이 어떠한 체제와 질서 속에 놓여 있고,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여성의 욕망은 어떻게 (불)가능한가를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 서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의 주인공이자 서술자인 이차래의 행위와 욕망, 그리고 그녀의 불안과 공포에 자연스럽게 시선이 간다. 전시라는 예외상태와 전후 레짐이 젠더 정치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면, 그것은 남성 젠더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여성 젠더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후 레짐 하 여성 젠더들 중 상당수는 ‘아프레 걸(après girl)’로 통칭되곤 했는데, 전후라는 뜻의 프랑스어 아프레 겐(après guerre)을 여성화한 조어였다. 본래 아프레 겐은 타락과 반항, 방종, 그리고 살인·강도·방화 같은 범죄를 수식하는 문구였는데, 그것이 전후 남한사회에서 여성화된 의미로 전이되면서 일체의 도덕적 관념에 구애됨 없이 구속받지 않으려고 하는 여성의 성적 방종이라는 이미지로 점철되게 되었다.¹⁵⁾ 양공주, ‘자유부인’, ‘팜므 파탈’ ‘여학생’ 등 아프레 걸의 다양한 유형이 있었

지만, 전후 한국사회에서는 아프레 걸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사회 건설에 요구되는 여성상을 촉구하는 한편, 무너진 젠더 질서를 재구축하기 위해 무질서 및 위기 담론을 통해 여성을 관리 통제하고자 하였다.¹⁵⁾ 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하고 있는 『끝없는 낭만』의 여주인공 이차래는 양공주가 아닐뿐더러 낭만적 사랑을 꿈꾸고 있는 여학생이다. 그런데 그녀 스스로 양공주가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불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전후 젠더 정치가 여성 젠더의 젠더적 위상이나 섹슈얼리티를 강제하고 있었다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

해방 직후 부모를 따라 귀환한 이차래는 아버지의 고향인 황해도 사리원에서 유년기 상하이로 이주해가면서 헤어졌던 배곤 일가와 해후한다. 그리하여 해방의 감격 속에서 양가 가부장의 즉흥적인 약속에 따라 당시 9살이었던 그녀는 14살인 배곤과 약혼하게 된다. 이후 아버지의 투옥과 어머니의 죽음을 뒤로하고 이차래 일가를 따라 월남해 서울에 정착했던 배곤과 함께 생활하던 그녀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자원입대한 그를 기다리는 한편, 어머니와 함께 근근이 생계를 유지해가면서 피난생활을 이어간다. 한편, 그녀는 유년기부터 영어를 학습해 구사하는 등 일정 정도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여학교에 재학하면서 학업을 병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어머니를 도와 일을 하면서 만난 미군이 영어를 구사하는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오는 것이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양공주’로 비취질 것에 대한 타인의 시선 때문이었다. 이후 전쟁에 출전한 배곤이 전사했다는 통지를 받고 낙담했던 이차래는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구애하는 미군의 사랑을 받아들여 그와 결혼하여 출산하기에 이른다. 이 소설에서 이차래는 약혼자였던 배곤과 구애자인 미

15) 권보드래(2009), 「실존, 자유부인, 프래그머티즘: 1950년대의 두 가지 ‘자유’ 개념과 문화」, 『아프레걸 사상계를 읽다』(권보드래 외),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p. 79.

16) 金福順(2009), 「아프레 걸의 系譜와 反共主義 敍事의 自己構成 方式 — 崔貞熙의 『끝없는 낭만』을 중심으로 —」, 『語文研究』 37-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 286.

군 ‘캐리·조오지’ 사이에서 빈민과 갈등하면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한편, 자신의 욕망을 발현하는 과정 속에서 죄의식을 갖기도 하는 등 전쟁기 남한사회 여성 젠더의 행위와 욕망을 내밀하게 보여준다.

약혼자였던 배곤과 미군 캐리·조오지 사이에서 빈민과 갈등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 『끝없는 낭만』의 서사에서 이차래와 배곤의 사랑 이야기는 거의 제시되지 않는다. 유년기 헤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과 해방 후 재회했을 때의 반가움, 양가 가부장의 결정에 의해 약혼을 한 상태에서 출전한 배곤을 기다리면서 그리워하는 모습들이 단편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오히려 이 소설의 서사는 이차래와 캐리·조오지 사이의 이성에 기초한 사랑 이야기로 읽힌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두 사람의 행위와 욕망에 초점을 맞추자면 사랑하는 남녀 사이의 ‘혼사장애담’ 정도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충분하다. 하지만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남한 여성과 미군 남성의 사이의 연애와 결혼은 서사 안팎에서 남녀 간의 ‘순수한’ 사랑 이야기로 읽히지 않는다. 그들이 욕망하고 있는 낭만적 사랑은 전쟁이 초래한 비상시에 점령군과 원주민 여성 사이에 발생한 ‘불온한 것’으로, 미군은 돈으로 남한 여성의 성을 산 것이고, 남한 여성은 향락에 빠져 자신의 몸을 팔아넘긴 것으로 치부되기 일쑤였다. 그들의 사랑은 그 자체로 성립 불가능한 것으로, 이때 남한 여성 젠더의 사적 욕망은 부정되고, 그녀는 국가와 민족을 배반한 퇴폐와 타락의 상징물이 된다.¹⁷⁾

이차래 역시 이를 모르지 않았다. 해서 처음 만난 미군이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불안 속에서 자신의 내밀한 감정을 들여다보게 되고 애정 앞에 불가능은

17) 이와 관련해 우에도 치즈코에 의하면, ‘매춘하는’ 여성은 그 자체로 오욕화되는데, 추업(醜業)에 종사하는 여성 존재 자체가 더럽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매춘’ 패러다임은 본인의 ‘의사’를 문제시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춘하는 여성과 다른 여성들을 나누는 ‘성의 이중 기준’을 떠받친다는 점에서 가부장제 코드의 변이라고 할 수 있다. 우에도 치즈코(1999), 이선이 역, 『내셔널리즘과 젠더』, 서울: 박종철출판사, pp. 119-120.

없다며 미군을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점차 자신의 감정에 따라 사랑을 키워나가게 된다. 그런데 미군을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게 되는 한편, 미군으로부터 경제적 원조를 받는 상황 속에서 주위의 시선을 떨쳐내지 못해 다시금 우울해진 그녀는 부모에게 과거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가자고 강변하지만, 미군에게 의존하는 현재의 삶이 붕괴될 것에 거부감을 갖는 부모의 눈치를 보기도 한다. 가부장의 몰락과 경제적 궁핍 속에서 부모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미군에게 자신의 성을 교환가치의 대상으로 제공한 것은 아니다. 그녀는 한 여성 개인으로서 그저 ‘낭만적 사랑’¹⁸⁾을 꿈꾸고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낭만적 사랑을 꿈꾸고 있었지만, 그녀는 미군과의 연애가 자신을 양공주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데 대한 불안을 쉽게 떨쳐낼 수 없었다. 그리고 약혼자 배곤의 죽음에 대한 모종의 부채의식 또한 지니고 있었다. 이처럼 미군을 욕망하는 여성의 불안, 자신의 욕망을 발현할 수 없는 데서 오는 히스테리는 모두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전쟁이 초래한 남성 부재가 역설적으로 여성의 욕망을 통제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죽은 남성이 살아 있는 여성의 욕망을 금기시하고 있었던 것

18) 낭만적 사랑을 한 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다만, 니클라스 루만의 논의에 기대자면, 낭만적 사랑은 “자기의식적인 자아 형성 기회의 증대”로 간주되는 ‘사회성’을 갖는다. 사랑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사랑뿐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랑이 하나의 세계를 혼자서(ein Welt für sich) 구성한다는 것이지만, 사랑 자체를 위해 하나의 세계(für sich ein Welt)를 구성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때 관건은 사랑을 수행하는 개인이 “각별한 공동의 세계를 구성”하여 타인으로부터 재생산의 근거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랑은 결혼이 될 수 있다. 한편 낭만적 사랑이라는 개념은 ‘열정으로서의 사랑’과 구분되는데, 무제한으로 상승될 수 있는 개체성을 포함시키거나, 지속성에 대한 전망을 갖고 결혼에 이름으로써 열정으로서의 사랑의 한계를 극복한다. 따라서 “사랑은 결혼의 기초가 되며, 결혼은 끊임없이 새롭게 사랑에 도움이 된다.” 낭만적 사랑이 결혼과 연결되는 것은 여기에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니클라스 루만(2009), 정성훈·권기돈·조형준 역, 『열정으로서의 사랑: 친밀성의 코드화』, 서울: 새물결 출판사, pp. 195-214.

이다. 해서 이차래는 캐리·쥬오지를 욕망하면서도 동시에 그 욕망을 부인하는 모순된 상태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군을 욕망하면 양공주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과 자신의 약혼자였던 배곤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 사이에서 그녀는 히스테리 환자가 되어갔던 셈이다.

“내가 너무 했어. 인제 다시는 「캐리」를 못만난다. 「캐리·쥬오지」가 나의 편지를 받아 읽고나면 얼마나 분해 할가. 꽤끔해 할가.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를 구해준 사람도 「캐리·쥬오지」요, 우리를 살게 만든것도 「캐리·쥬오지」가 아니냐. 인제 「캐리·쥬오지」와 인연을 딱 끊는다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일을 아신다면 그 절망이 얼마나 크랴!”
…(중략)…

“나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지금 나는 천길 낭떨어지기에 서 있다. 한발 자칫하면 떨어지고 만다.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리자. 발뿌리를 고추 세워가면서 정신을 차리자.”¹⁹⁾

자신에게 호감과 애정을 가지고 구애하는 미군에게 단교의 편지를 보낸 이차래는 자신의 행위가 미군을 낙담시킬 것과 미군으로부터의 경제적 원조가 끊기면 부모가 절망할 것이라는 점 때문에 번민한다. 그녀 또한 미군을 향한 애정이 커가고 있었기 때문에 단교의 결심은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욕망을 좌절시키는 데서 오는 고통 역시 수반한다. 해서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 단교를 결심하고 편지를 보냈음에도 그녀는 지속적으로 번민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욕망의 발현이 양공주가 되는 나락으로 자신을 떨어뜨리게 할 것이라는 불안의식은 결코 쉽게 떨쳐낼 수 없었다. 낭만적 사랑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열정의 투사 대상이 미군이라는 데에서 그녀는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스스로

19) 崔貞熙(1958), pp. 129-130.

의 욕망을 차단하려고 한 것이다.

이때 미군은 단순히 남한사회의 여성 젠더를 양공주로 전락시키는 존재로서만 거부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미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다른 한편으로 반공주의에 기초해 전쟁을 치르고 있던 당시의 정세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한국전쟁의 고착화에 따른 미군 주도의 정전 협정 추진과 이에 반해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론이 대두하던 상황 속에서 미군은 적대시되었다. 해방 직후 민족의 해방군으로 환영받았다가 군정 체제화 후식민 상태를 고착화시킨 점령군으로 비판받았던 미군은 한국전쟁의 급변하는 전황 속에서 패색이 짙은 전세를 역전시키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연합군의 대표이자 전쟁으로 인한 기아와 물자 부족 속에서 남한사회에 인도적·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원조자로서 추앙되기도 했다. 하지만 반공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북진통일론의 기치 속에서 주한 미군은 민족의 통일에 저해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문화를 말살하고, 한국의 풍속을 오염시키는 점령군으로 다시금 여겨질 뿐이었다. 『끝없는 낭만』의 서사에서도 1953년 소련의 유엔 대표에 의해 한국전쟁 정전이 제의되자 이승만 주도로 국회에서 정전 반대 결의문이 채택되고 이어 38선 철폐 정전 반대 국민 총궐기대회가 펼쳐진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차래 또한 “굴욕적이며 패배적인 양보를 하고 있”는 “미군에게 가는 분노”²⁰⁾를 주체하지 못하고 미 대사관 앞의 군중 데모에 가담하여 그들을 ‘비굴한 것들’이라고 멸시하면서, 그러한 인식을 캐리·조 오지에게까지 확장해 그 또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그에게 단교 편지를 보냈던 것이다. 민족적 울분과 분노에 휩싸여 북진통일을 외치고 있는 시위대를 보며 이죽거리고 있던 미군을 본 그녀는 공산당에 대한 분노보다 더 큰 분노를 느끼면서 그들을 비굴한 것들이라며 울분을 토로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분노와 울분이 낭만적 사랑을 꿈꾸고 있던

20) 崔貞熙(1958), p. 124.

대상인 캐리·조오지라는 미군에게까지 향했던 것이다. 이처럼 반공주의 이념 속에서 미군은 개인적·민족적 층위에서 멸시의 대상으로 위치지어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양공주로의 전략 위협을 가하거나 북진통일이라는 민족적 염원을 저해하는 미군은 남한사회 여성 젠더의 낭만적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한 개인이 자신의 내밀한 욕망을 발견하게 된 이후에는 바로 그 욕망을 탐닉하고 발현하는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만 존재의 의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정희의 『끝없는 낭만』 역시 욕망하는 주체로서의 여성 젠더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서사가 전개된다. 배곤의 전사 소식 이후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도 미군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키워가던 이차래는 여전히 양공주가 되는 것에 대한 불안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낭만적 사랑이 교환가치의 대상으로 미군에게 성을 제공하는 양공주의 행위와 다르다고 규정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발현한다. 이는 양공주가 군사주의와 제국주의의 ‘희생자’로 규정되는 것에 대해 거리를 두는 한편, “능동성과 주체성, 경험, 그리고 사물을 보는 자율적 태도를 지니고” “자기 표현을 통해 자신들을 단순한 희생자나 억압받는 존재로 규정하는 지배적 재현에 반항”²¹⁾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녀는 양공주가 되는 타락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투사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친구 김상매의 사촌 현영훈으로부터 전선에서의 배곤의 소식을 전해들은 뒤 병상에 눕게 된 그녀는 약혼자 배곤에게 용서를 빌면서 “곤이 살아서 돌아온담 난 바른 길을 갈것 같다.”²²⁾고 말한다. 자신의 욕망을 발현하면서 잊고 있었던 배곤이라는 죽은 자가 다시 금 이차래의 욕망을 통제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21) 김현숙(2001), 「민족의 상징, ‘양공주」, 『위험한 여성: 젠더와 한국의 민족주의』(일레인 H. 김·최정무 편), 서울: 삼인, p. 223.

22) 崔貞熙(1958), p. 152.

사실 이차래의 불안과 공포는 타인들에게 양공주로서 비난 받는 것이나, 다시금 집안이 경제적 궁핍함에 처할 수도 있다는 데 있지 않다. 그녀의 불안과 공포는 자신의 욕망을 금기시하는 배곤으로부터 기인한다. 해서 캐리·쥬오지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키워가면서도, 그와 결혼해 출산을 하면서도, 배곤이라는 존재가 유령처럼 그녀를 따라다니면서 그녀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부정한 것으로 의심하게 하고, 그러한 욕망을 통제하게 한 것이다. 욕망하는 주체로서 자기를 발견한 여성 젠더가 자신의 욕망을 통어하는 자로서의 남성 젠더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는 앞서 살펴봤듯이, 전후 남성성 회복의 욕망이 어떻게 여성의 욕망을 부인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드러낼 뿐만 아니라, 여성의 욕망이 남성에 의해서만 비로소 발현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여성은 그 자체로 욕망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이다. 남성에 의해 여성의 욕망이 통제되고 금기시된다는 것은 여성은 욕망하는 주체로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에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욕망하고 싶어도 욕망할 수 없는 여성은 죽은 자와 마찬가지로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어느 날 밤 꿈엔 「캐리·쥬오지」에게 안겨서 잠이 들었는데 부르릉 부르릉 하는 비행기 소리가 났어요. 눈을 떠 하늘을 쳐다 보았더니 비행기는 이제 곧 폭탄을 내려뜨릴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캐리」. 저것 좀 봐요. 비행기가 폭격하려고 해요.』

「캐리·쥬오지」도 하늘을 쳐다 보았어요.

『참 그렇군. 어서 저 숲속으로 들어가야 해요.』

「캐리·쥬오지」가 나를 안은채 숲이 자욱한 속으로 들어 갔습니다.

『여긴 괜찮을거야.』

「캐리·쥬오지」가 안도의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폭격을 맞더라도 「캐리」하구 같이 맞음 아프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을 것 같아요.』

나의 이 말에 「캐리·쥬오지」는 나를 꼭 껴안아 주면서 입을 맞췄습니다.

...(중략)...

곤 꿈을 꾸게 되는 경우에도 소리를 지르는 때가 있었어요. 「캐리·쥬오지」의 꿈과는 정반대의 꿈을 꾸면서도 소리는 마찬가지로 질렸던 것입니다.

곤은 언제나 나에게 무서운 쟁기를 들고 대어 들었습니다. 식칼인 경우도 있고 권총이 아니면 도끼나 창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쟁기를 가진 그에게 나는 언제나 쫓기우는 것이었어요. 소리소리 지르면서—.²³⁾

이차래는 욕망하는 대상과 욕망을 통제하는 자에 관한 꿈을 꾸는데, 이는 신경증적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의 신경증적 증상은 남성 주체가 자신의 순결이나 행복을 빼앗아갈 것이라는, 즉 자기 상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²⁴⁾ 그래서 거기에는 언제나 죽음에의 공포가 내재되어 있다. 비행기가 폭격하려는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미군과 함께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그녀, 무기를 들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배곤에게 쫓기는 꿈을 꾸는 그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꿈이든, 과거 약혼자에게 쫓기는 꿈이든, 그녀는 죽음에의 공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자신의 욕망이 부정당하는 데서 오는 불안이 죽음에의 공포로 전이되는 과정을 여실히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욕망하는 주체로서의 존재 의의를 상실한 여성이 맞이할 파국을 예감하게 한다. 그녀가 겪고 있는 우울과 신경증, 불면증 역시 이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해서 미군과의 사랑을 확인하고 성관계를 갖고, 결혼에 이르게 된 뒤에도 그녀는 욕망하는 주체로서의 자기의 삶을 완성하지 못한다. 물론 이는

23) 崔貞熙(1958), pp. 155-156.

24) 許允(2013), 「1950年代 洋公主 表象의 變轉과 國民 되기 — 崔貞熙의 『끝없는浪漫』을 중심으로 —」, 『語文研究』 41-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 268.

배곤이 살아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로부터 금기시된 욕망을 발현한 자신이 처벌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욕망 자체가 부정당하는 상황 속에서 그녀는 낭만적 사랑의 완성이라고 여겨진 결혼에 이르러서도 타인의 시선에 노출된 자신의 욕망을 의심하고 회의하게 된다. 양가의 축복 속에서 결혼한 뒤 떠난 경주 신혼여행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녀는 스스로 자신들이 인텔리 부부이지 미군과 성을 거래한 양공주의 관계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인식과 무관하게 그녀는 타락한 여성, 민족과 국가를 배반한 여성, 향락에 도취해 성을 매매한 여성으로 낙인찍히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먼저 미국으로 귀국한 미군이 자신을 버릴 것에 대한 또 다른 불안이 여기에 더해진다. “『무사히 가거나 말거나 나한테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들은 당신 나라에 돌아가면 훌륭한 아내 약혼자 연인들이 있잖아요? 교양있는 모임과 질서있는 생활이 있잖아요? 한국에 와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본국에 돌아가면 다들 질서 있고 교양있는 생활을 하잖아요?』”²⁵⁾ 온갖 비난과 처벌에의 공포를 감수하고 자신의 사랑의 감정에 충실해 미군과 결혼한 그녀였는데, 본국으로 돌아간 미군이 자신과 아이를 버릴 것이라는 생각, 결국 끊임없이 자신은 양공주가 아니라고 부인해왔지만 결국 양공주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난지에 대한 불안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고, 이로 인해 그녀는 죽음이라는 자기 파멸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최정희의 『끝없는 낭만』은 미군과의 사랑과 결혼에 이른 여성의 파국을 서사화하고 있다. 그녀가 파국에 이른 것은 결국 여성의 욕망이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남성 젠더에 의해 통제되고 금기시되었기 때문이었다. 전쟁이라는 예외상태 속 남성성 상실이 욕망하는 여성을 타락한 자나 배반한 자로 규정하여 그러한 욕망의 발현 자체를 불가

25) 崔貞熙(1958), p. 275.

능하게 해 욕망하는 주체로서 여성의 자리를 삭제해버린 것이다. 이때 여성은 남성의 권력과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의 욕망을 발현할 수 없는, 해서 살아 있으면서도 살아 있지 못한 자의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여성의 낭만적 사랑은 그 감정의 주체인 여성에 의해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남성성 회복을 욕망하는 남한사회의 남성 젠더들을 대상으로 해야만 비로소 의미를 지니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는 전후 레짐 하 남성성 회복의 젠더 정치가 여성의 주체적인 자기 기획을 불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차별된 여성(성)과 파탄난 남성(성)

최정희의 『끝없는 낭만』의 서사는 결국 이차래의 죽음으로 종결된다. 결혼 후 본국으로 귀국한 미군과의 사이에서의 아이를 홀로 낳은 그녀는 다시금 미군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한다. 즉, 그렇게 아니라고 부정해왔지만 결국 양공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몰락한 가부장은 그러한 딸을 통해 미군의 지속적인 경제적 원조를 받을 생각뿐이었고, 어머니는 미군이 보내온 물자를 밀거래할 뿐, 그녀의 불안은 전적으로 그녀만의 몫이었다. 그런가하면, 전쟁에서 생환한 과거 약혼자 배군은 그녀에게 혼혈아인 아이를 미군 아버지에게 보내고,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종용한다. 그녀의 죄는 모두 전쟁 탓이니 자신이 그녀를 구원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여전히 여성 젠더의 욕망을 통제하는/하려고 하는 자로서의 남성 권력의 폭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이차래는 끊임없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변민을 이어가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자신의 아이인 ‘토니·쥬오지’를 성남영아원이라는 혼혈아 입양기관에 방기한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미쓰·장’

을 만나 그녀의 집에서 동반 음독자살하여 생을 마감한다. 이차래가 자신의 아이를 혼혈아 입양기관에 방기한 것은 배곤으로부터 그 아이가 한국인과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 말을 들은 뒤 그녀 또한 그렇게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는 오염된 여성이 자신의 오염된 상태를 증거하는 아이를 제거하기 위한 속죄의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랑해서는 안 되는 미군을 사랑해 그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그녀는 배곤으로 상징되는 남한사회의 남성 세계의 질서와 문법에 의해 민족과 국가를 배반한 타락한 여성, 양공주로 낙인찍힐 뿐이었다. 해서 그녀가 양공주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길은 미군과의 사이에 난 혼혈아를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것밖에 없게 된다. 민족이 인간의 정념과 육체를 순결의 상징으로 변형시키고, 그에 따라 개인이 자기를 엄격히 통제하고 순결을 유지하는 것을 통해서 고결한 민족성을 획득할 수 있다²⁶⁾는 문법이 여기에서도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낙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녀는 강고한 남성성의 세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아이를 버리는 속죄의 제의를 거쳐야만 했던 것이다. 이처럼 전쟁과 전후 남성성 회복의 욕망은 여성을 제멋대로 단죄하면서 죄 없는 그녀들을 속죄하게 하는 폭력을 다시금 발현하였다. 하지만 자신의 아이까지 방기하는 여성의 속죄 의식은 남성성의 상징적 질서를 강화시킬 뿐 말 그대로 여성의 죄 사함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한 번 오염된 여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화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한편, 아이를 맡기고 돌아오는 길에 캐리·쥬오지의 귀국 환송연에서 보았던 미쓰·정을 만난 이차래는 그녀에게 동질감을 느끼면서 그녀의 집으로 향한다. 그러면서 자신을 ‘미세쓰·쥬오지’라고 부르는 그녀에게 자신의 이름은 이차래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 이름은 이차래. 이견 나의 조상과도 통하고 나의 조국 땅 안에 사는 우리 민족의 어느 사람하

26) 조지 L. 모스(2004),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내셔널리즘과 섹슈얼리티』, 서울: 소명출판, pp. 263-306.

고도 통할 수 있는 이름이랴요.”²⁷⁾ 여기에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자 한다. 이차래가 미세스·쥬오지가 된 것은 미군과의 사랑과 결혼의 결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국가를 배반하고 양공주가 되어 타락한 것을 드러낸다. 해서 그녀는 다시금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자 아이까지 방기하면서 자신은 미세스·쥬오지가 아니라 이차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 스스로 알고 있듯이, 그녀는 민족과 국가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 더구나 남성에 의한 구원은 구원이 아니라 또다시 그들에게 종속된 삶을 의미할 뿐이고, 한 개인으로서의 여성의 욕망은 계속해서 부인당하게 된다. 남성 젠더에 의해 양공주로 낙인찍힌 여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자체로서 존재의 의의를 갖는 여성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녀의 죽음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처럼 『끝없는 낭만』의 서사에서 전쟁이라는 비상시 미군을 사랑하여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한 한국 여성의 죽음은 그 자체로 전후 남한사회의 젠더 질서가 남성중심주의적으로 재편되어가는 상황 속에서의 남성에 의한 여성의 처벌을 보여준다. 남성성을 상실하게 한 여성은 단죄되어야만 했던 것이다. 하지만 여성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 누구인가. 이에 주목했을 때 『끝없는 낭만』의 서사는 남성중심주의적 세계 속에서 남성성을 훼손한 불온한 여성에 대한 처벌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역설적으로 전후 남성성 회복의 욕망과 그에 기초한 세계가 얼마나 폭력에 기대고 있는가를 폭로하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발휘한다. 그런 점에서 이차래를 중심으로 하는 전후 젠더 정치 하 여성의 행위와 욕망, 여성의 자기서사를 보여주고 있는 『끝없는 낭만』은 여성의 욕망을 금기시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정희의 소설에서 여성은 단순한 ‘타자’가 아니라 민족, 국가, 계급, 가족주의, 반공주의, 모성신화, 가부장제, 민족주의, 글로벌 자본 등 소위 ‘근대’

27) 崔貞熙(1958), p. 313.

로 운위되는 각종 요소에 균열을 내며 저항하는 일종의 ‘타자성의 주체’였다.”²⁸⁾ 그리고 남성성 구축은 언제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여성 젠더를 필요로 한다는 것, 여성(성) 없는 남성(성)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 민족과 국가에 기댄 남성성은 회복은커녕 파탄으로 귀결될 뿐이다. 상실된 남성성 회복의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성을 폭력적인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전후 레짐 하 젠더 정치의 문법은 바로 여기에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젠더 정치와 관련해 주디스 버틀러의 ‘수행적 행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남성성과 여성성은 ‘본질’이나 ‘근본적인 것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행되고 있는 일련의 기호들이다.²⁹⁾ 즉, 남성성과 여성성은 수행의 효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주목했던 최정희의 『끝없는 낭만』의 서사는 글쓰기라는 언어적 실천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전후 레짐 하 젠더 정치의 문법과 질서를 재생산하면서 동시에 거기에 균열을 일으킨다. 전후 레짐 하 젠더 정치와 관련해 (최정희의) 문학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젠더를 구성하는 과정의 수행적 장치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그 장치가 젠더 정치의 문법과 질서를 강화시키거나 고착화시키는 여타 장치들을 닳아 있으면서도 완전히 그것에 포섭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의 작동 방식 자체를 문제 삼게 한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서사의 전개 과정이 전후 젠더 정치의 문법과 질서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이 거기에 틈을 내고 있었던 것이다. 문학의 상상력이 현실의 질서를 넘어서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28) 김복순(2012), pp. 228-229.

29) 존 베이넨(2011), 임인숙·김미영 역, 『남성성과 문화』,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p. 28.

참고문헌

【자 료】

崔貞熙(1958), 『끝없는 浪漫』, 서울: 同學社.

【논 저】

공임순(2017), 「1950년대 전후 레짐(postwar regime)과 잡지 ‘희망’의 위상」, 『대중서사연구』 23-3, 대중서사학회.

권보드래(2009), 「실존, 자유부인, 프래그머티즘: 1950년대의 두 가지 ‘자유’ 개념과 문화」, 『아르레걸 사상계를 읽다』(권보드래 외),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김복순(2015), 「트랜스로컬리티로서의 ‘나쁜 여자’와 ‘불평등 정당화’의 남한적 특수성 — 195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1-3, 대중서사학회.

_____ (2012), 『“나는 여자다” — 방법으로서의 젠더』, 서울: 소명출판.

金福順(2009), 「아프레 걸의 系譜와 反共主義 敍事의 自己構成 方式 — 崔貞熙의 『끝없는 낭만』을 중심으로 —」, 『語文研究』 37-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김현숙(2001), 「민족의 상징, ‘양공주’」, 『위험한 여성: 젠더와 한국의 민족주의』 (일레인 H. 김 · 최정무 편), 서울: 삼인.

니클라스 루만(2009), 정성훈 · 권기돈 · 조형준 역, 『열정으로서의 사랑: 친밀성의 코드화』, 서울: 새물결 출판사.

마사 누스바움(2015), 조계원 역, 『혐오와 수치심』, 서울: 민음사.

우에노 치즈코(1999), 이선이 역, 『내셔널리즘과 젠더』, 서울: 박종철출판사.

임미진(2017), 「1945-1953년 한국 소설의 젠더적 현실 인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조르조 아감벤(2010), 양창렬 역, 『장치란 무엇인가?/장치학을 위한 서론』, 서울: 난장.

조지 L. 모스(2004),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내셔널리즘과 섹슈얼리티』, 서울: 소명출판.

- 존 베이년(2011), 임인숙·김미영 역, 『남성성과 문화』,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 캐서린 H.S. 문(2002), 이정주 역, 『동맹 속의 섹스』, 서울: 삼인.
- 허윤(2016), 「냉전 아시아적 질서와 1950년대 한국의 여성혐오」, 『역사문제연구』 35, 역사문제연구소.
- 許允(2013), 「1950年代 洋公主 表象의 變轉과 國民 되기 — 崔貞熙의 『끝없는 浪漫』을 중심으로 —」, 『語文研究』 41-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Krasner, Stephen D. (1983),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원고 접수일: 2018년 1월 10일

심사 완료일: 2018년 1월 25일

게재 확정일: 2018년 1월 31일

ABSTRACT

Recovery of Masculinity and the Taboo of
Female Desire in the Postwar Era

Oh, Tae-young*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both men and women were placed in a new field of gender politics in the grammar of the ‘postwar regime’ which promoted the structural change of South Korean society. And at that time, gender politics was largely dominated by the resurgence of masculinity and the taboos of female desires. Choi Jung-hee’s *Endless Romance* features a man who wants to secure his authority as a patriarch by sponging off the masculinity of the US military, and men who criticize women who love and marry US military men as “foreigners’ whores” while at the same time wishing to recover their lost masculinity through the act of putting themselves as the hero in saving such unfortunate women. These men felt uneasy about the loss of their masculinity after liberation and war and so placed women as objects of sexual exchange value or branded women’s love and desire as being unhealthy. Through this, they tried to regain their masculinity. The cry of patriarchy and male supremacy was nourished by notions of pure blood and nationalism. On the other hand, Choi, Jung-hee’s *Endless Romance* also narrates the de-

* Assistant Professor, Dharma College, Dongguk University

struction of a woman who has come to love and marry a member of the US military. The reason that she came to ruin is because the exceptional situation of war which brought about the loss of masculinity made women into fallen or betrayed beings, making it impossible to express desire itself. At this time, the romantic love of a woman was not meaningful in terms of the woman who was the subject of the emotion. Rather, it had only become meaningful for the male gender of South Korean society who desired to recover masculinity. The degraded and polluted woman, even if she carried out her own ritual of condemnation and purification, was not accepted as a member of the nation. This means that the gender politics of the recovery of masculinity made the self-planning of women impossible. The stronger the desire for the recovery of lost masculinity, the more the female desires were forbidden. This was the workings of the grammar of the postwar regime.